

애플 '긴급구조 위치정보', 30분으로 확대

- 기존 5분에서 30분으로 연장 시행...“인명구조 골든타임 확보 기대” -

애플사가 긴급구조 위치정보 제공 시간을 기존 5분에서 30분으로 대폭 확대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애플사가 그간 ‘아이폰’ 이용자의 긴급전화(112·119) 시 통화 중 또는 통화 종료 후 5분만 제공하던 긴급구조 위치정보를 30분으로 연장, 시행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소방청, 경찰청 등 긴급 구조기관에서는 그간 구조자의 정확하고 신속한 위치 파악을 위해 애플 ‘아이폰’ 사용자들의 위치정보 제공시간 연장 필요성을 제기해 왔다.

이에 방미통위는 지난해부터 애플사, 경찰청, 소방청,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참여하는 ‘긴급구조 위치정보 품질 협의체’를 운영해 왔으며, 이를 통해 애플사의 위치정보 제공 시간 연장 방안 등을 협의해 왔다.

애플사는 최근 ‘아이폰’ 소프트웨어(SW) 업데이트 과정에서 이 같은 기능을 적용했다.

위치정보 제공 시간이 충분하지 못하면 구조대가 처음 신고받은 장소에 도착했다라도 구조 대상자의 실시간 위치 변화 파악 및 수색이 어려울 수 있는데, 이번 애플사의 조치는 긴급구조 현장에서의 국민 생명 및 안전 보호를 위한 골든타임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이번 애플사의 결정을 환영하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호를 위해 긴급구조 위치정보의 품질 개선 및 사각지대 해소 방안들에 대해 글로벌 사업자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담당 부서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 위치정보정책팀	책임자	팀 장	우혜진 (02-2110-1290)
		담당자	사무관	임현주 (02-2110-1622)